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쿠데타에 앞서 '혁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군 관계자 등에게 으름장을 놓는 모습.



전두환이 군내 사조직(하나회)을 동원해 반란을 일으키고, 이를 막기 위해 수도권경비사령관 이태신과 진압군들이 일촉즉발 격돌하고 있다.

‘서울의 봄’ ... 광주서 ‘봄’

상영 8일차를 맞은 지난 29일 기준 전국 누적 관객수 271만 명을 넘어선 영화 '서울의 봄'이 광주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관련기사 7면> 같은 날 기준 광주시 영화관 87개 스크린에서 총 309회가 상영됐고, 누적 관객수도 9만 9110명에 달했다. 개봉 이후 광주지역 박스오피스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

광주 지역민들에게 이 영화의 의미는 더욱 남다르다. 영화는 5·18의 가해자인 전두환 신군부가 12·12군사 쿠데타가 벌어진 1979년 12월 12일 오후 7시부터 13일 새벽 4시까지 9시간 동안 정권을 찬탈하는 과정을 객석에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 5·18민주화운동 피해 당사자= 12·12군사쿠데타가 없었다면 전두환이 광주시민을 학살하는 5·18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 때문에 5·18로 가족을 잃거나 부상을 당한 5·18 피해 당사자들에게 영화 '서울의 봄'은 아픔으로 다가온다. 영화에서 주인공인 인물들의 대다수가 5·18의 직접 가해자라는 점에서다.

정수만 전 5·18 유족회장은 "전두환이 반란을 일으키고 정권을 잡는 과정을 영화를 통해 고스란히 드러나 역사를 몰랐던 이들도 인상 깊게 느껴질 거라 생각한다"면서 "특히 영화에서 12·12를 '반란'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부정확한 방법으로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 군부세력은 자신들에게 강력히 저항한 광주를 향해 총칼을 들이밀었지만 광주는 5·18로 끝까지 저항했다"고 말했다.

양재혁 공법단체 5·18유족회장은 "영화에서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 노태우 등 군사 쿠데타 세력이 결국 5·18 당시 광주에서 광주시민들을 학살한 가해자들"이라면서 "대다수 핵심인물들이 이미 사망했지만 영화를 통해 그들의 불법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그러면서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씨가 이 영화를 꼭 관람하고, 개인적인 소회를 밝혀줬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덧붙였다.

이지현 5·18부상자동지회초대회장은 '서울의 봄'은 "140분 가량의 러닝타임 속 애국이 무엇인지 보여줬던 영화"라며 "당시의 '하나회' 조직은 오늘

5·18 광주 '영화 이상의 의미' 애국·민주주의 돌아보는 영화 10대~노령층 관람객도 다양화 다스리는 마음의 준비 필요 SNS에 '심박수 챌린지' 인기

날의 부패한 정치권력과 다를 바 없다. 단순 영화의 흥행에서 그칠 것이 아닌 앞으로의 대한민국 미래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역사 영화, 그 이상의 의미=광주에서는 서울의 봄 관객층이 10대부터 노령층까지 다양하다.

광주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김서영(여·21)씨는 "5·18 관련 영화는 본적 있지만 본격적으로 전두환이 정권을 잡았던 12·12에 대한 내용을 영화로 접한 건 처음"이라면서 "역사를 바로 세우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치열했던 만큼 평온한 여생을 살았



12·12 전사자 김오량 소령을 모티브로 한 오진호 소령을 연기한 배우 정해인.

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극중에서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아쉽다"고 설명했다.

영화 개봉을 손꼽아 기다렸다는 이진영(여·47)씨도 "광주사람으로서 '서울의 봄'은 역사 영화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며 "12·12 당시 쿠데타가 성공하지 않았다면 5·18도 없었을 거란 생각이 들어 영화 속 쿠데타를 멈출 수 있었던 순간마다 화가 났다"고 회상했다.

광주시 동구에 사는 정병모(43)씨는 "5·18의 아픔을 간직한 도시의 시민으로 상영 첫날인 22일 회사 퇴근 후 늦게 영화관을 갔지만 영화관의 많은 좌석이 꽉 차 있었다"면서 "관람객들도 10대부터 나이가 지긋한 어른까지 다양했다. 특히 어른들은 중요 장면마다 한탄을 하면서 관람했다"고 말했다.

◇ 분노 게이시 상승...심박수 챌린지= 개봉 이후 '서울의 봄'이 흥행하면서 '심박수 챌린지'가 SNS에서 퍼지고 있다.

영화를 보면 심박수가 점점 올라간다는 것이 챌린지가 관심을 끄는 이유다. 관람객들은 심박수를 쟈수 있는 스마트워치 등을 차고 영화를 보고 높은 심박수를 인증하는 게시글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게시글에서는 영화 속 '분노의 순간'마다 심박수가 점점 올라가 상영 전 90BPM에서 시작해 영화가 끝난 후에는 심박수가 160BPM까지 치솟았다는 인증사진까지 올라오고 있다.

국방부장관이 신군부 세력에 이끌려 다니며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모습, 전두환 사조직인 하나회 세력에 무력화되는 장태완(극중 이태신 역할) 수도경비사령관의 모습, 최규하 대통령이 정승화 참모총장(극중 정상호 역할) 체포 동의안에 서명하는 모습 등 쿠데타에 동조하는 인물들의 모습 등을 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스트레스 지수가 오르고 분노가 올라온다는 것이 챌린지 참가자들의 설명이다. 챌린지 참여자들은 "화가 나서 영화 보기 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보는 내내 답답함과 먹먹함으로 눈물을 쏟았다" 등의 평을 내놨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알립니다

2024 광주일보 신춘문예

12월 7일(목)까지 접수

광주일보사가 한국문단의 새 주역이 될 참신하고 역량 있는 신인작가 발굴을 위해 신춘문예 작품을 공모합니다.

광주일보 신춘문예는 광주일보 창간 이듬해인 1953년 시작된 이후 전통과 권위의 등용문이 되었으며, 배출된 작가들은 한국 문단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치열한 문학정신이 살아 있는 작가 지망생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부문 및 상금

- 단편소설 : 200자 원고지 80매 안팎(당선작 1편, 상금 300만원)
- 시 : 3-5편(당선작 1편, 상금 100만원)
- 동화 :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당선작 1편, 상금 100만원)

■ 접수 마감

2023년 12월 7일(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호)

■ 보내실 곳

우편번호 61482, 광주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편집국 문화부. 문의 062-220-0624

■ 유의사항

- 팩스나 이메일, 손글씨 원고는 받지 않으며 A4에 출력한 원고를 보내야 합니다.
- 접수 시 맨 앞장과 뒷장에 이름·전화번호·주소·이메일 주소를 첨부해주시고.
- 응모 작품은 발표된 적 없는 창작품이어야 하며, 다른 곳에 중복 입선된 원고나 표절일 경우 당선이 취소됩니다.
- 결봉부에 공모 부문을 꼭 명기해 주십시오. (응모작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당선작은 2024년 1월 1일자 광주일보 지면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光州日報社

눈... 눈... 눈... 전남 서부 2~7cm 쌓인다

전남 북동부에 1~3cm 내려 아침 최저 영하 3도 맹추위

1일 새벽까지 영풍, 장성을 중심으로 광주-전남에 눈이 내린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광주와 전남서부에는 1일 오전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이다. 전남 서해안은 1일 오후 6시까지 비 또는 눈이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30일 밤을 기준으로 영풍·장성에 대해 설예비특보를 발효했으며, 특히 1일 새벽 사이 강하고 많은 눈이 올 것으로 내다봤다.

예상 적설량은 광주, 전남서부가 2~7cm이며 전남 북동부는 1~3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눈이 아닌 비로 내릴 경우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예측됐다.

기온도 뚝 떨어져 영하권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1일 광주-전남 아침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2도로 떨어지며 낮최고기온 또한 4~8도에 머물 것으로 예보했다. 2일

또한 아침최저기온은 영하 3~3도, 낮최고기온은 8~11도로 영하권에 머물겠다.

한편 30일에는 경북 경주시 일대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30일 오전 4시 50분께 경북 경주시 동남동쪽 19km 지점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진원의 깊이는 12km로 추정된다. 당초 기상청은 지진과 중 속도가 빠른 P파만 분석해 규모를 4.3으로 추정하고 전국에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한 뒤 추가 분석을 거쳐 규모를 하향조정했다.

광주-전남을 비롯해 전국에서 피해 신고가 접수되지는 않았다. 광주-전남은 계기진도(각 지역에서 느껴지는 흔들림의 정도) 1을 기록했으며, '지진계에는 기록되나 대부분 사람들은 느낄 수 없는 수준'에 그쳤다.

계기진도는 경북이 5로 가장 높았으며, 울산(4·실내 많은 사람이 느끼고 일부는 잠에서 깰 정도), 경남·부산(3·정차한 차가 약간 흔들리는 정도), 강원·대구·대전·전북·충북(2·조용한 상태 건물 위층 소수의 사람만 느끼는 정도) 등 순이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화정아이파크 인근 과속방지턱의 속사정 ▶6면

복스 - '이건희 컬렉션' 건축의 무명' ▶14·15면

K리그1 최준진 '3위 싸움·강등 전쟁' ▶18면

사랑과 감사의 69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3]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The new EQE SUV

누구도 예상 못한 아우라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확장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원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민중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원 서비스 센터 BP 062)942-7200 / GR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림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EQE 350 4MATIC SUV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Wh/kWh) : 3.9(도상) 4, 고속도로: 3.7) 1회 충전거리(km) : 404, 공차중량(kg) : 2540, 배터리 용량(kWh) : 88.4
- EQE 500 4MATIC SUV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Wh/kWh) : 3.8(도상) 3.9, 고속도로: 3.6) 1회 충전거리(km) : 401, 공차중량(kg) : 2510, 배터리 용량(kWh) : 88.8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형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사양 및 구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